Ticona-DSM, PBT 6만톤 합작 지연

완공시기 2005년으로 연기 … MGC는 2004년 Bio Plastic 1만톤 투자

Ticona와 DSM은 50대50 합작으로 2003년까지 PBT(Polybutylene Terephthalate) 6만톤 플랜트를 건설키로 합의했으나 PBT 수요부진에 따라 완공시기를 2005년으로 연기했다.

2000-01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Engineering Plastics 수요가 크게 감소했고, 특히 PBT 수요는 전자제품 수요감소에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Ticona와 DSM은 네덜란드의 Emmen에 PBT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PBT 프로세스는 Ems Investa Fischer 기술을 채용한다. Emmen에는 DSM의 PBT 3만톤 플랜트가 소재하고 있다.

PBT를 비롯한 PC(Polycarbonate), Nylon-6, Nylon-66 시장은 2001년 극도로 침체됐으나 2002년 들어서는 약간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기·전자제품을 비롯해 Mobile 기기 수요가 살아나고, 자동차 시장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Mitsubishi Gas Chemical은 2002년 7월까지 일본 Yokkaichi에 Aliphatic Polyester Carbonate Biogradable Plastic 400톤 파일럿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일본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MGC의 Biogradable Plastic 상표명은 Iupec이다.

MGC는 2004년까지 1만톤 상업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 아래 파일럿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MGC는 Iupec 가격이 PE(Polyethylene) 가격보다 150%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io Plastic은 Polylactic Acid 계열 플래스틱 Blending에 사용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30>